

“무의탁 노인들 아픔 함께 나누어야죠”



◇간절함 기도로 말 연화를 받은 홍씨부부는 무의탁노인들에게 약품을 보시하며 보살행을 펴고 있다.

“나눔의 집” 3년째 의약품 보시 홍수천·문정숙 약사부부

전장이 활귀고 간 상흔이라고 치부하기에 너무나 큰 아픔을 겪은 정신대 할머니들, 그들이 용기있게 모여서 노후를 의지하고 있는 ‘나눔의 집’(경기 도 광주시 회춘면)에 3년째 묵묵히 의약품을 보시하고 있는 불자가 있어 추운 겨울에 훈훈한 미담이 되고있다.

문정숙(30)씨 부부는 어머니를 낳았을 때부터, 소아과, 청신관, 파스 등의 의약품들을 나눔의 집에 제공해 왔다.

이같은 홍씨부부의 의약품 보시는 대한동창이자 나눔의 집 원장인 혜진스님으로부터 그들의 실정을 듣고부터, “아직은 마음만 앞설 뿐입니다. 아무리 약을 정성껏 드린들 마음의 상처야 아물겠습니까?” 홍씨부부는 나눔의집뿐 아니라 무의탁노인들을 기거하는 ‘아기계의 집’에도 자비를 펼치고 있다.

또한 홍씨부부는 약국손님 가운데 노인들에게는 대부분 무료로 약을 지어준다. 이렇게 숨은 보살행을 펴고 있는 홍씨부부는 각각 약국에 있는 방 2칸짜리 전세 살림을 하고 있다.

홍씨는 여동생이 스님으로 출가할 정도로 독실한 불교집안이다. 이들 부부가 신앙이 더욱 깊어진 것은 간절함 기도로 말 연화를 받은 때부터라는 홍씨는 “앞으로도 돌아간 한양을 도리로 살아가겠다”고 말한다. (포항=이윤호기자)

방 2칸 전세 살면서 ‘돌아난 한마음’ 실천



◇네팔노동자 5백여명이 지난 14일 불지모임을 결성하고 새해맞이 한마당 잔치를 펼쳤다.

네팔불자모임 14일 창립

네팔불자들의 모임(Nepal Buddhist Family)이 지난 14일 동국대학교 중강당에서 창립했다. 경제정의실천불교연합(회장 이철조, 안동일)이 지난해 4월 개설한 외국인노동자마을의 외국인불자모임에 참여하는 5백여명의 네팔노동자들로 구성된 네팔불자모임(회장 인드라구루)은 창립회의와 함께 새해맞이 문화 한마당 잔치를 마련, 결속을 다졌다.

이날 행사는 네팔 고승 세후 린포체(부다 다르펜터 원장)와 칼살라 스님의 법문으로 시작, 여법하게 진행됐다. 2부에서는 네팔의 새해맞이 전통의 식인 로사(KHO SAAR)가 이어졌고, 3부에서는 지방별 성씨별 풍습소개와 춤 노래공연이 펼쳐졌다. 또 네팔 전통노래와 악기가 연주돼 외국인 노동자들의 흥을 돋웠다.

한편 이번 네팔불자모임은 네팔노동자에게 뿐만아니라 국내 체류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향상의 모체가 될 것으로 보여 관계자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귀순옹사 후원기로 광명선원 신도회

광명선원 신도회는 지난 20일 북한귀순옹사 한용수씨를 후원기로 하는 인연식을 가졌다. 광명선원장 초격스님은 “이번 인연식은 불교계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신 귀순한 한씨의 올바른 신앙생활과 사회적응을 적극 후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작년 6월 귀순 정부기관의 보호기간을 마치고 지난 16일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팔만대장경 글자수 5천2백80만자 확인

해인사 팔만대장경의 총글자수는 5천2백80만자이며, 그동안 2만 2천여자로 알려졌던 실제수는 이보다 많은 3만4백50여자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표준자 이외의 속자·약자를 이체자(異體字) 역시 지금까지 알려지진 1천2백74자보다 훨씬 많은 1만4천2백여자로 확인됐다.

해인사대장경연구소(소장 홍갑스님)와 삼성문화재단은 2년여에 걸친 팔만대장경 전산입력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발표하고 앞으로 있을 교정작업에서 3천자 이상의 이체자가 더 나올 것으로 내다봤다.

태고종 개혁안과 조율나서

태고종 종정 보성스님은 최근 종단의 개혁과정에서 발생한 불협화음과 관련 “종단통합 차원에서 모든 문제를 조속히 시정하고 문제가된 부분을 백지화하라”는 종정유시를 발표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문수)는 지난 16일 18일 회의 열고 종회의원선거법 규정에 따라 전국구의원 14명 중 9명을 주요화했다.

태고종은 이달말 임시총회를 열어 명예회복된 3부원장의 사표를 적법한 절차를 통해 수리하고 신임총무원장 및 총무원장 임인사건을 다시 인준할 예정 이다.

승가대 김포학사 비행기소음 심각

서울도심보다 7배...수업 수행 차질 “이전 고려해야”

중앙승가대학이 추진중에 있는 김포학사 김포공항의 비행기 이착륙시 들려오는 소음과 진동 때문에 수업과 수행에 많은 불편을 초래 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사이점을 재고해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게 일고 있다.

김포학사가 위치할 곳은 경기도 김포군 풍무리 산 159-1번지 의 5필지, 김포학사의 근접해 있는 금성공업사(풍무리 3-1)가 지난 92년 풍무리일대에서 실시한 항공기 소음도 측정에 따르면 김포학사 일대의 소음이 평균 78~80WECPNL(항공소음기준·일반 소음측정 기준)으로 65~67dB에 이른다. 이는 서울 광화문지역보다 10~15dB 높은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수치는 평균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비행기가 김포를 지나서 북쪽 항로를 택할 경우 소음 고치기 100 WECPNL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포공항 이착륙 비행기는 하루 평균 5백90여대, 항공기의 지축권 증가와 함께 비행횟수가 늘어남 것으로 예상, 소음피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조사결과에 미뤄 국립환경연구원 소음진동과 관계자들은 “15dB 이하로 하는 학교의 소음도에도 훨씬 초과할 뿐만 아니라 수업진행에서 교수와 학생으로부터 많은 인내력을 필요로 하게 될 것이 며, 스님들의 차분한 수행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 했다. 또 “소음에 따른 난청도 초래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교육부와 환경전문가들은 “3중 방음장, 방벽기 설치 등의 기술적 소음방지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 하고 정밀한 환경영향평가 후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한편 조계종 총회 산하 승가대 대학원

중학 불교교과서 검인정 못받아

교법사단·교육연 ‘경기도 교육청 직무유기’ 주장

중학교 불교교과서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교육위원회의 검인정을 받지 못한채 불교교육을 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불교교육연합회는 2년전 남양주군 관동중학교를 통해 경기도 교육청에 중학교 불교교과서의 검인정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은 심의를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도 하지

진각종 위덕대 헌공불사

재단 새 이사장에 해일 종의회의장

진각종립 위덕대(총장 손재석)는 지난 16일 종학관 대강의실에서 교직원 1백여명등 3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헌공불사를 갖고 위덕대를 세계수준의 대학으로 발전시킬 것을 발원했다.

이날 헌공불사에서 위덕대 손재석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명문대학을 지향하고 결코 백화점식 학과배열이 아닌 정보화 세계화 지향화를 선도하는 3대 특성과 정책을 통해

않는채 ‘구교과서를 사용해도 된다’며 검인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관련 불교교육연합회는 “검인정심사를 하지 않거나 경위를 설명해 줄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경기도교육청에 보낼 예정이며 연말에 서울이나 부산에서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검인정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대구 첫 청소년 수련관 마하야나문화원 운영

대구에 최초로 건립되는 청소년수련관을 불교계가 위탁 운영한다.

대구 수성구청은 (재)마하야나불교문화원이 무상제공한 수성구 왕곡동 일원 내지 2천5백여평에 청소년수련관을 건립, 위탁 운영자로 마하야나문화원을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3월 개관을 앞두고 주변조경과 진입로 포장공사가 한창인 수련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고층과 지상 1층 나동 등 2개동으로 건립됐다.

예산 2억7천만원 의결

대통령 대의원총회

대한불교청년회(회장 이상번)는 지난 14일 부산불교신도회관에서 제33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의장 선출, 신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사단법인 설립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재직 대의원 1백18명중 73명이 참석한 이날 대의원 총회에서는 배영진 전 중앙회장이 참석 대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제 18대 대의원 의장으로 피선됐다. 대의원 총회는 또 안앤스님 기념사업 △출판, 홍보사업 △교육, 연수사업 등 주요사업에 소요되는 2억7천여만원의 예산을 의결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방장(수석사 주지)스님을 부총재로 추대했다.

승가대 김포학사 비행기소음 심각

서울도심보다 7배...수업 수행 차질 “이전 고려해야”

회(위원장 성문스님)는 22일 항공기 소음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김포학사 현장답사를 실시 한다. (김포=도광선기자)

개운사 시왕상복장 도난

지난 18일 서울 성북구 개운사의 시왕상 복장이 도난당한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한편 조계종 총무원과 사찰측도 대책마련에 나섰다.

이번에 도난당한 복장은 명부전의 전륜대왕, 평등대왕, 우금대왕, 변상대왕, 초강대왕, 지장보살상 6불상의 것으로 조선시대 전반기 유품으로 추정되 나 아직까지 이에 대한 정확한 사료가 없어 문화재로 지정돼 있지는 않았다.

총무원과 개운사측은 빠른 시일내 협의를 거쳐 전문조사반을 구성 정확한 실태조사후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을 경우 체계적인 관리체계도 세울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정사 산중총회 적법 조정감사특위, 협의위원회

지난 18일 조계종 조정감사 특위는 월정사·관음사·용주사 감사건에 대해 종원총회에 따라 처리하라는 원칙을 정하고 월정사건에 대해 협의위원회를 위촉, 협의토록 했다.

이에 앞서 조계종 법규위원회는 지난 5일 한양문도회가 심판 청구한 월정사 산중총회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관례상 미비된 점이 없지 않으나 지방 조정법 제1장 6조 2.3항에 근거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환경교육원 ‘집없는 미아 신세’

입주 사무실 철거...전세금 7천만원 절실

환경교육원은 현재 입주해 있는 서울 영등포구 93번지가 재개발로 3월 초 철거됨에 따라 늦어도 다음 달 말 이 금액으로는 사무실과 강의실로 사용할 수 있는 최소 40평 규모의 장소를 마련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서울 가

환경교육원 ‘집없는 미아 신세’

입주 사무실 철거...전세금 7천만원 절실

환경교육원은 전문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우리나라 유일의 환경교육단체로, 환경 문제를 불교적인 세계관을 통해 해결하기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을 펼치고 있다.



만남과 수행과 깨달음으로 가는 길

일타큰스님께서 펴내신 알기 쉬운 불교책!

“불보살의 가피!
누구나 입을 수 있습니다.”

신국판 / 5,000원

사람의 한평생 중 마음먹음 대로 되는 일이란 지극히 희다. 그러나 살다보면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오랫동안 절을 다닌 신도들조차도 기도가 어렵다고 말하거나 방법이 잘못되어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총 52가지의 기도성취 영험담 이야기 !!

이제 일타큰님은 자신과 도반·신배·제자·신도들이 직접 체험한 기도성취 영험담들을 모아 이 책을 간행하였다.

총 6장 52편의 다양한 이야기로 엮어진 이 책을 읽다보면 기도를 통해 틀림없이 부처님의 가피를 입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야기 끝에 붙인 큰스님의 해설을 통하여 올바른 기도법과 함께 기도성취의 저를 길을 알 수 있게 된다.

I. 나와 가족·제자의 기도 이야기 / II. 기도는 깨달음의 지름길
III. 업병도 불치병도 기도를 통하여 / IV. 욕심을 구한 열매의 기도
V. 생활 속의 기도와 득력(得力) / VI. 기도인을 바른 길로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을 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참된 자유와 깨어있는 삶의 길을 열어주는 대지비 법문

범망경보살계

제1~5권 / 신국판 / 각권 320원 내외 / 각권 6,000원

《범망경보살계》는 대한불교 조계종 전계대화상인 일타큰스님께서 수십년 동안 보살계 신념법회에서 강설하신 무애법(無碍辯)을 기록·편집한 책이다. 5부의 대작(大作)으로 보살계를 알기 쉽고 재미있게 풀이한 장광설(長廣說)의 대지비 법문이다.

이미 보살계를 받으신 분, 대응불자가 되고자 하시는 분, 본래의 마음자리로 되돌아가 참된 깨달음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으십시오. 무명의 업정이 깊고 얽힌은 공덕이 생겨날 것입니다.

일타큰스님의 유훈과 인연이야기 모음집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신국판 / 4,500원

“죽을 위의 세상, 인간은 과연 윤회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은 업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일타큰스님 자신과 가족·신도들이 체험했던 유훈과 인연이야기를 53가지로 가려 뽑아 엮은 책 이 책을 읽다보면 유훈의 인과보에 대한 감명을 받고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범공양문 신국판 / 5,000원

일타큰스님께서 물자라면 꼭 알아두어야 할 부처님 과 역대 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감로법문 예프 5개 1세트 / 10,000원

듣는 것 만으로도 깨달음의 세계에 들어오고 환희심이 일어나는 일타큰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불자들의 입문서 · 초발심자경문 세권의 해설서, 드디어 완간!

보조국서의 《초심》 강설집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의 지침서 보조국서의 《초심》을 일타큰스님의 저서한 범공과 많은 이야기로 풀어 엮은 책으로, 누구나 어렵지 않게 읽고 넓은 불교의 세계 속으로 몰입하게 될 것이다. 5,000원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 강설집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영원과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영원과 행복의 문은 어느 비결인가?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을 일타큰스님 특유의 구수한 문체로 알기 쉽게 해설한 이 책은 영원한 삶의 비결과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하게 해줄 것이다. 5,000원

이윤비구의 《지경문》 강설집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이윤비구의 《지경문》을 일타큰스님이 직접한 이야기를 엮어 조목조목 해설했다. 불자의 신심과 원력을 북돋우고 지혜를 길러주는 신령의 나침반이 될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겨 담긴 자재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5,000원

☎ 동심 효림 전화: (02) 587-6612 · 3 팩스: (02) 586-9078